폐암을 이겨나가는 76세의 경비원 선생님 19

“해남도가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단 시간 내에 만들었네요…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평생 생각하시면 다시는 암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영혼 될것입니다.정상세포의부산물입니다.그래서우리는암을이기는약이아니고면역력을높이는

잠시는 저는 이 선생님과 팽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양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의식(생각)에 의하여 유지 되어지는 자율신경에 문제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애착, 소유, 분노,억눌림…..등 이러한 스트레스의 작용으로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와 잘못된 식사습관, 화학제품에 익숙해진 현대문명에 오염으로부터 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의 삶에 목적성과 언제 가는 삶이 끝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삶에 대한 사랑하시고 자유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습관을 바꾸시고 다른 행복이라는 영혼이 나의 가족,

“그것은 우리 나이가 되면 터득하는 삶의 도 인데…..젊은 사람이 대단하군먼……”

팽 선생님의 말씀을 잠시 멈추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어이없어 하면서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이 미 늙어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팽씨!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권 닥터는 우리 같은 환자들 때문에 걸은 젊어도 속은 모두 타서 늙은 우리와 같을 것 같은데…….” 얻어지는 건강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하하하하” 잠시 저는 바라보는 어른들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만들면서 말을 정리 했습니다

“호호호호호” 암세포도 사랑하고 나 신경세포도 사랑하면서 늘~~행복을 나누는 이웃이 되어

칭찬인지, 농담이 모르는 이야기와 사심 없는 웃음에 진료실에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사실 저의 진료실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다시정보유엠물에대하여보충을해주고말을했습니다.주시면세상이한결살맛날것같습니다”

“그래서 암은 CT에서는 사라져 보여도 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암은 종양 덩어리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암은 잘못된 정상세포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